***전쟁하시는 그리스도와 전쟁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다윗과 아비가일***

**8/1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25:28**  
**28** 부디 이 여종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시니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내 주께 안전한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사시는 동안 어떤 악도 내 주 안에 없을 것입니다.

**마 12:3**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까?

---

**삼상 25:39-42**  
**39**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말하였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수치를 갚아 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청혼하였다.  
**40**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께서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시려고 우리를 부인께 보내셨습니다.”  
**41** 그러자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기 이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겨 주는 노예입니다.”  
**42**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에 타니, 여종 다섯이 그 뒤를 따랐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전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롬 11:33**  
**33**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고전 1:24, 30**  
**24**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골 2:3**  
**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엡 3:10**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롬 16:27**  
**27**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다윗은 구약에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전한 예표이며, 가장 긴 기간에 걸쳐 다루어진다. 신약 또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분명히 계시해 준다(마 12:3). 그러므로 다윗의 아내는 교회를 예표한다. 다윗에게는 적어도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 첫째는 사울의 딸 미갈이고(삼상 18:27하), 둘째는 아히노암(25:43)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교회를 예표하는 특징이 전혀 없다. 오직 아비가일(42절)만이 교회를 예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비가일의 전남편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 준다. 아비가일의 전남편의 이름은 나발인데, 그것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다(삼상 25:25). 그녀의 남편은 다윗이 궁핍할 때, 다윗을 멸시하고 거절하며 반대했다(10-11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시하며 반대하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예표한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가 죽었다. 이 일은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아내가 될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우리의 부패한 본성, 즉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거절하며 멸시하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배필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운다.(교회의 세 방면, 1권, 교회의 의의, 8장, 148-149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기상 25장 2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윗은 부자인 나발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했다. … 어리석게도 나발은 다윗의 간청을 거절하고 다윗의 종들을 모욕했다(10-11절). … 나발이 말한 것을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각자 칼을 차라고 명령했다(12-13절). 그러고 나서 다윗은 “내가 광야에서 이자를 지켜 주어 어떤 소유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었구나. 그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만일 나 다윗이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라도 남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21-22절)라고 말했다.

사무엘기상 25장에서 우리는 … 다윗을 진정시킨 일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다 (14-20, 23-25절). 그녀는 서둘러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스아와 건포도 백 덩이와 무화과 덩어리 이백 개를 가져다가 자신의 나귀들에 실었다(18절). 그녀는 다윗을 보고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이 죄악을 오직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24-25상절)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부디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끝맺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어,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시는 때에 내 주께서 이유없이 피를 흘리게 하시거나 직접 복수를 하신 이것이 내 주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거나 마음에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하게 대하시는 때에 이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30-31절)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자신을 만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또한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 준 아비가일을 축복함으로써 아비가일의 호소에 반응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 그녀에게 “안심하고 그대의 집으로 올라가시오. 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그대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소.”(삼상 5:35)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분노가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 진정되었음을 본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을 때, 그는 심장이 마비되어 돌같이 되어버렸다. 약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가 죽었다(삼상 25:36-38).

사무엘기상 25장은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을 말하면서 끝맺는다(39-44절). 그녀의 미모와 지혜는 다윗의 마음을 끌었고,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6장, 127-129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6장*

**8/2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11, 14-15**  
**11**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

**시 110:5-6**  
**5**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계시어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6**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시어 시체로 그곳을 가득 채우시며 큰 땅의 머리를 쳐부수시리라.

**마 4:10-11**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1**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보아라, 천사들이 나아와서 그분을 섬겼다.

**계 19:7-9**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

다윗은 부활 이전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고난당했고, 싸우는 왕으로서 원수를 패배시켰으며, 땅을 얻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들을 준비했다(대상 18:7-11, 22:2-5, 14-16, 28:2, 29:2-9).(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3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교회의 실재, 7장, 260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와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를 패배시키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으로 계시되신다. 결혼 잔치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 즉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싸우는 장군으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휘하에 있는 왕들과 그들의 군대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 이 세 부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선동을 받아 사람들은 심지어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신 분께 직접 맞서 전쟁을 벌이기까지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와 열 왕과 그들의 군대는 어린양께 맞서 전쟁을 할 것이다. 이 전쟁은 땅이 하늘에 맞서는 싸움일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맞서는 싸움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더욱 악해져서 그분께 선전 포고를 하기까지 할 것이다. 사람이 실지로 하나님께 선전 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그들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 우리는 신랑이 오셔서 그분의 신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분의 원수들에 맞서 싸우시는 것을 본다. 신랑은 총사령관이시고, 신부는 군대이다. 이것은 갓 결혼한 부부의 신혼여행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혼여행 기간에 우주를 청소하실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는 불 못에 던져질 것이고(계 19:20), 사탄은 결박당하여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이다(20:1-3). 그때 그리스도는 기뻐하실 것이고, 그분의 신부인 우리도 우리의 신랑과 놀라운 신혼여행을 누리며 기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다니엘서 2장과 일치한다. … 다니엘서 2장 34절은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여기에서 거대한 인간 형상은 인간 정부의 총체를 상징하고, 치는 돌은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닌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인간 정부는 열 발가락의 단계,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 왕의 단계에 도달하면 직접 하나님께 맞서 싸울 것이다. … 그러므로 인간 정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을 높이며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맞서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치는 돌로서 오실 때, 홀로 오시지 않고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실 것이다. … 신부인 교회를 얻으셔서 결혼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치는 돌로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 신부가 없다면 그분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맞서 홀로 싸우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군대가 있으실 것이고, 이 군대는 그분의 신부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결혼식 날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전쟁을 해 온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이들, 곧 이미 악한 자 마귀를 이긴 이들(계 12:11)과 결혼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의해 떠 내어진 돌로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거대한 인간 형상의 열 발가락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열 왕을 칠 것이다(계 19:11-21). 그렇게 하여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거대한 형상을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산산이 부술 것이다(단 2:35). …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는 인간 정부를 멸절시킬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4333, 4345-4346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Ⅱ, 52장; 신약의 결론, 교회, 25, 30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381, 424, 426장*

**8/****3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7, 13-14**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13**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

**엡 6:10-12**  
**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골 1:24-25**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25**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후 4:10-12**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사무엘기상 25장 이후로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언제나 전사인 다윗 곁에 있었고, 전쟁 중에 있는 그를 따랐다. 그러므로 그녀는 전투하는 교회, 곧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교회를 예표한다. 이것이 교회의 예표인 아비가일의 특징이다.(교회의세 방면, 1권, 교회의 의의, 8장, 149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 사역자가 된 것은”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청지기 직분이 새 언약의 사역이다. 새 언약의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 안으로 분배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 한 범주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다른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청지기 직분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청지기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는 데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접대하는 것은 고난을 수반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에 손님이 되는 것도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주인으로서 또는 손님으로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는 것을 통해 양육받았고 온전하게 되었으며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왕가의 구성원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고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구속의 성취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11장, 105-106, 109-110쪽)

교회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싸우는 전투원이다.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먼저는 그분의 신부를 맞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맞아들이신 후에 그리스도와 이기는 이들은 원수에 맞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비교 계 19:11, 14).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14절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전쟁에 참여한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절들은 신부의 결혼 예복이 신부가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입는 제복이기도 함을 시사한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신부이며 전투원인 교회를 본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본다. … 신부로서 우리는 반드시 점이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워야 하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전투원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장비되어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97장, 879-88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3, 97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2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20장*

**8/4 목요일**

***아침의 누림***

**엡 6:10-12**  
**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

**마 6:10**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7:21**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계 12:11**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 6:10**  
**10** ‘새벽처럼 밝아 오고 달만큼이나 아름다우며 해만큼이나 맑고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하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 ”

**계 19:7-8**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계 3:5**  
**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

우주 안에는 세 가지 의지,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 만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투원이 되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지 혹은 세 가지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창조된 존재들인 천사들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천사들 중 하나인 천사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임명되었다. 이 천사장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다. 그 교만 때문에 악한 의도가 생겨났고, 그것이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 하나님의 의도에 더하여 … 두 번째 의도인 두 번째 의지 … 곧 사탄의 의지가 있다. 사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 모든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3장, 573쪽)

***오늘의 읽을 말씀***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즉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다. 복음의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다음 두 가지 명령은 믿는 것과 침례 받는 것이다.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반드시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 회개한다는 것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는 것이다.

새사람으로서 교회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해야 하고, … 신부로서 교회는 사랑과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패배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반드시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하고, 사랑과 빛 안에서 살며,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싸운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것들을 위해 반드시 교회는 새사람과 신부와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굳세어지도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능력’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다.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힌 큰 능력, 곧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위에 앉게 하신 큰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자신 안에서 싸울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패배한다.

굳세어지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굳세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의지는 강해져야 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해파리 같이 의지가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다(행2:40). 이 명령은 능동적이면서도 피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원받다’는 피동적이지만, ‘받으십시오’는 능동적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라는 바울의 명령도 마찬가지이다. …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새롭게 되어야 함(23절)을 보며, 5장에서는 복종해야 함(21절)을 본다. 새사람이 되려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신부가 되려면 복종해야 하며, 전투원이 되려면 굳세어 져야 한다. 전투원인 우리는 신사나 사랑스러운 신부가 아닌 사자로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사람과 신부와 전투원이 되기 위해 새롭게 되고 복종하며 굳세어져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3장, 575-57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3권, 생명의 체험을 위한 기본 원칙, 6장; 진리공과, 3단계, 3권, 46과*

**8/5금요일**

***아침의 누림***

**히 10:19-20**  
**19**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 13:13**  
**13**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

**아 1:4**  
**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고후 12:10**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시 62:5-6**  
**5** 내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가 기대하는 것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6**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높은 산성이시니, 나 흔들리지 않으리.

---

우리는 영 안에서 그 영, 곧 부활하시고 영광 안에 계신 주님을 접촉한다.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이다. …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 다윗의 용사들과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방랑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한다(히 13:13).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두 방면, 곧 내적인 방면과 외적인 방면이 있다. 내적인 방면은 술람미에 비유할 수 있고, 외적인 방면은 아비가일에 비유할 수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휘장 안에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성(城) 밖에 곧 진영 밖에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있다. 내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는 아침에 방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접촉한다. 이것은 상아 궁전들에서 함께 생활하고 교통하는 술람미와 솔로몬에 비유할 수 있다(시45:8). 우리는 내실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비밀한 장소 안에서 주님을 접촉한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방랑하던 아비가일에 비유될 수 있다.(교회의 세 방면, 1권, 교회의 의의, 9장, 156-157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매일 우리는 이 두 방면을 체험할 수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술람미로서 휘장 안에 있으면서 지성소 안에서 살며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아비가일로서 진영 밖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살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술람미와 솔로몬처럼 우리는 상아 궁전들 안에 머물면서 내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다윗을 따라 전쟁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외적으로 생활하고 일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밖에 계신 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내적으로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술람미의 누림을 가지며, 외적으로 우리는 아비가일의 공개된 생활을 갖는다.

외적으로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같은 비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박해하며 반대할 때에도 우리는 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나는 감옥에 있었을 때, 외적으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처럼 고문을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솔로몬 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 곧 부활 안에 계시고, 영광 안에 계시며, 그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렸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과 관련해서는 먼저 고난을 겪으셨고 그런 다음 부활을 체험하셨다. 그러나 우리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부활을 접촉하고 그런 다음 고난을 겪는다. 그분은 죽으셨고 그런 다음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하고 그런 다음 죽는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스스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를 만지고 접촉하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라고 말할 수 있다.

오직 휘장 안에 들어간 이들만이(히 10:19-20)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질 수 있다 (13:13).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취하게 하신다.(교회의 세 방면, 1권, 교회의 의의, 9장, 157-159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1권, 성막의 영적인 적용, 2장*

**8/6 토요일**

***아침의 누림***

**히 6:19-20**  
**19**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 줍니다.  
**20**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 6:13**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롬 8:28-32**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31**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고전 15:57-58**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박해나 괴롭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외적으로 우리는 압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외적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기쁘다. 그러한 능력과 영광과 기쁨이 바로 부활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솔로몬이신 그리스도이다. 술람미는 장래에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예표하며, 또한 오늘날 부활 안에 있는 교회를 예표한다. 술람미라는 예표는 장래에 있을 것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예표만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예표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이다.(교회의 세 방면, 1권, 교회의 의의, 9장, 164-165쪽)

***오늘의 읽을 말씀***

1900년에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을 때, 부활의 나타남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구원을 얻은 한 형제가 있었다. … 당시 의화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다. … 어느 날 그는 … 큰길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큰길에는 두건을 쓰고 손에 칼을 든 의화단원들이 흉악하게 수레 한 대를 호송하고 있었다. 그 수레에는 이십 대로 보이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게되었다. …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심지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여 찬송을 부르며 수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상점 안에서 이 장면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결국 그는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해 주님을 받아 들였다. 나중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나도 나가서 주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날 그 자매가 의화단에게 처형당하러 끌려가면서 보여 준 광경은 부활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 완전히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도 부활을 나타내셨다. … 오늘날 교회도 이러하다. 죽은 성도들이 어느 날 모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살아 있는 모든 성도들도 변형되고 휴거될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부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오늘날 부활 안에서 살 수 있다.

술람미가 솔로몬과 함께 상아 궁전들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교회가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을 예표한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활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한다. …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한 인내로 스스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취하도록 우리를 지탱하시고 분발시키신다.

겉으로 볼 때 십자가의 길은 매우 가혹해 보인다. 그러나 이 길을 취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음을 안다. … 우리는 내적으로는 솔로몬이고, 외적으로는 다윗이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술람미이고, 외적으로는 아비가일이다. 사실 이 둘은 나누어진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서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많든 적든 내적으로는 솔로몬이 되고 외적으로는 다윗이 되는 체험이 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슬픔의 아들들이며,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능력과 교통이 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그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솔로몬’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솔로몬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윗으로 예표되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길을 취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체험은 깊은 것이며 성경의 표준에 부합되는 것이다.(교회의 세 방면, 1권, 교회의 의의, 9장, 165-167쪽)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57장*

1. **2022. 8. 1 ~ 2022. 8. 6**
2.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6-7장
3. **추가로 읽을 말씀**
4.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6장   
   디도서 라이프 스타디, 4-5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1권, 성막의 영적인 적용, 2장   
   장신약의 결론, 150, 218장*

**8/7 주일**

***아침의 누림***

1. **엡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 **엡 6:10-13**  
   **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찬송**
4. **549(英).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中:414)**

**1**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돼  
하늘의 기쁨 얻기 원하면   
땅의 사랑을 버려야 하네.

**2**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돼  
하늘 영광이 내 영 이끄니   
땅의 복 내 사랑 못 빼앗네.

**3** 휘장 안에서 영광 주 보며   
진영 밖에 간 예수 따르리  
보좌 면류관 날 격려하니   
구유와 십자가 날 못 막네.

**4** 휘장 안에서 부활 흡수해   
진영 밖에서 십자가 길 가  
하늘에 계신 주 얼굴 보며   
주님의 이 땅 자취 따르네.

**5** 휘장 안에서 하늘 맛보며   
진영 밖에서 땅을 견디네  
땅의 체험 날 아프게 하나   
하늘의 교통 날 찬미케 해.

**6** 휘장 안에서 주를 누리며   
진영 밖에서 공급하겠네  
하늘의 생명 살아 나타내   
사람들 축복 얻게 하겠네.

**7** 휘장 안으로 들어가겠네   
진영 밖으로 나아가겠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안에 들어오도록.